

조선후기 한양의 상류주택과 비교를 통한 낙선재의 건축특성 연구

조 규 형*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주제어 : 상류주택, 낙선재, 안채, 사랑채, 가옥도형

1. 서론

낙선재는 19세기 중반인 헌종 13년(1847)에 건립되었다. 낙선재의 건립은 헌종의 문집인 『원헌고(元軒稿)』에 수록된 낙선재 상량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립 목적은 헌종 자신의 휴식과 경빈 김씨의 처소로 쓰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량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 또한, 상량문의 내용 가운데 사치스럽지 않고 색칠한 서까래를 걸지 않았다는 기록에서²⁾ 궁궐 내, 왕의 거처 공간임에도 권위적인 면을 벗어난 소박한 건축형식으로 건립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남녀공간을 분리한 배치 평면, 구조 및 양식의 소박함, 단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상류주택 형식의 건축임을 설명하고 있다³⁾. 그

렇다면, 낙선재가 궁궐 내에 지어진 여타 왕의 거처공간이나, 침전과 같은 격식을 배제하고, 상류주택의 형식을 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상류주택의 어떤 부분과 유사한지, 낙선재만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 연구로, 조선후기 한양 내의 상류주택 건축형식이 어떠했는지를 고찰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 궁궐 내에 건립되었으나 여타 궁궐 건물과는 다른 형식을 취한 낙선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간 조선후기 한양의 상류주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19세기 이전의 건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그마저도 변형이 심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근래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던 가옥도형이 발굴되면서 몇몇 연구자에 의해 조선후기 한양의 주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부 가옥도형은 원래의 위치 고증과 도시적 변화 등이 연구되면서 사료적 가치가 충분함을 입증하였다.⁴⁾ 한

* 교신저자, 이메일: hyungin@korea.kr

1) 노진하, 『樂善齋 一廓의 造營背景과 建築特性』,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4, 낙선재와 석복헌 상량문의 해석을 기초로 영건 경위를 밝혔다.

2) 위 논문, 29쪽, “丹腹未塗 猶恐規模之過度 采椽不斷 庸示敦樸以爲先” - “곱고 붉은 흙을 바르지 않았으니, 이는 집을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않은 것이고, 색칠한 서까래를 걸지 않았으니, 질박함을 우선으로 한 뜻을 보인 것이다.”

3) 고유섭, 『한국건축미술사초고』, 1999, “낙선재는 조

선 고유의 현실적 주택건축의 수법을 극도로 정화시킨 것으로...”, 장경호, 『韓國의 傳統建築』, 1992, “...마치 양반집의 평면과 기풍을 느끼게 하는 건물이다.”

4) 정정남, 『家屋圖形을 통해본 18세기 漢城府에 위치한 사대부의 家垵와 주택』,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

8 논문

편, 낙선재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있었고,⁵⁾ 낙선재와 함께 궁궐 내 사대부 주택의 특징을 보이는 연경당과 건청궁의 성격을 비교 연구한 사례도 있었다.⁶⁾ 그러나, 궁궐 내 상류주택 형식인 낙선재와 궁궐 밖, 한양과 주변 지역의 상류주택을 구조양식, 공간구성 등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한양의 상류주택의 일반적 특성 즉, 규모 및 실 구성, 구조양식, 주요 부재 규격 및 안채와 사랑채 간 공간구성 등의 특성을 도출하여 낙선재와 비교함으로써 낙선재가 갖는 건축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는 19세기 궁궐 내에 상류주택 형식의 건축이 형성된 이유와 상호 연관 관계를 이해하고, 이후 궁궐 내에 건축된 연경당과 건청궁, 함화당과 집경당 등 유사 건축의 생성과 전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범위는 조선후기 한양에 건립된 상류주택⁷⁾으로 하였다. 현존하는 전통가옥 중 본 연구의 상류주택 성격에 부합하는 가옥 6동과

장서각 소장 가옥도형 중 상류주택 성격에 부합하는 16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현존하는 가옥들의 실측도면을 바탕으로 안채 및 사랑채의 평면형식, 구조 및 세부양식을 분석하였고, 김좌근고택⁸⁾과 장서각 소장 가옥도형을 통한 배치 및 공간구성 즉,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획 및 출입 방법, 건물의 연결 관계 등을 분석하여 양자의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하고, 낙선재와 비교하였다.

2. 조선후기 한양의 상류주택

2-1. 현존하는 상류주택

현재 전통가옥으로 한양(현 행정구역상의 서울지역)에 남아 있는 건물은 30여 동이며, 그 중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은 27동이다. 지정된 27개 가옥 가운데, 조선후기에 건립된 가옥은 10동이 해당되지만, 그 중 규모가 작거나, 상류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것 등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성격에 부합되는 대상으로 6개 가옥을 선정하였다.

평면 형식은 안채 및 사랑채의 실측 도면을 바탕으로 평면 형태, 실 구성 등을 분석하고, 규모와 주칸⁹⁾, 기둥의 규격과 주고(柱高), 기단 및 초석의 가공 여부, 가구, 처마 형식, 막새의 유무, 지붕형식 등을 분석하여 안채 및 사랑채의 일반적인 기준형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안국동 윤보선가 등 6동의 안채에 대하여

표대회논문집, 2005.11, 정경남, 『인사동 194번지 都市의 변화와 18세기 漢城府 具允鉦家屋에 관한 연구』-장서각 소장 里門內 具允鉦家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7권 3호 통권58호, 2008년 6월, 홍승재, 「장서각 소장 가옥 도면」, 건축역사연구 제18권2호 통권63호, 2009년 4월, 정경남, 「壬辰倭亂 이후 南別宮의 公廡의 역할과 그 공간 활용」-장서각 소장 「소공동홍고양가도형」, 「사대부가배치도형」의 분석을 통하여-, 건축역사연구 제18권 4호 통권65호, 2009년 8월, 홍승재, 강인선, 「조선후기 한성부 상류주택의 규모와 영역별 실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권, 2011

5) 각주 1)의 논문

6) 김동욱, 『고종 2년의 연경당 수리에 대해서』, 건축사연구, 2004. 3

7) 낙선재는 궁궐에 있는 상류주택 형식의 건축으로 상류주택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궁궐이 있는 도성을 포함한 한양 지역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채영역, 사랑채영역, 대문과 중문영역, 사당영역 등 일정 영역을 갖추고, 60칸 이상의 규모([표 5] 장서각 소장 가옥도형 공간구성 현황의 규모 참고)를 갖춘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축역사연구 제21권 1호 통권80호 2012년 2월

8) 한양지역은 아니지만 인근의 경기 이천의 '김좌근고택'은 낙선재와 유사한 배치 형식을 보이고 있어 예외적으로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9) '間'은 '칸' 또는 '칸'으로 읽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면적, 규모를 의미할 경우에는 '칸'으로 입면상 간살의 수 등 길이를 의미할 경우에는 '칸'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0) 석파정은 홍선대원군이 소유하면서 불리워진 이름으로 원 소유자인 김흥근(金興根, 1796~1870, 안동김씨의 중심인물인 김조순과 사촌지간인 김명순의 아들)이

조선 후기 한양의 상류주택과 비교를 통한 낙선재의 건축특성 연구 9

[표 1] 한양지역 대상 가옥 현황

* 규모는 소실된 건물을 추정한 전체 규모임. ** ()는 변형 및 근대 이후 복원된 건물임.

가 옥 명	건립과 변화	가옥구성	규모*	양식 분석	배치 분석
안국동 윤보선가	1870년대 건립, 안채 및 사랑채의 내부 개조 및 확장	안채, 사랑채<산정채>, (안사랑채), (행랑채), (별채)**	90여간	안채 / 사랑채	×
석과정 ¹⁰⁾	1850년 전후 건립, 행랑 등 건물 소실, 별당 이건(一자형에서 ㄱ자형으로 변형)	안채, 사랑채, 별채, (별당)	90여간	안채 / 사랑채	×
한규설가옥	1890년 건립 추정, 1980년 현 위치로 이전, 대문, 행랑채, 사잇담 등 추정 복원	안채, 사랑채, 별채, 중문채, 꽃간, 행랑채, 대문채	64간	안채 / 사랑채	×
도정궁 경원당	1872년 건립, 1979년 현 위치로 이건, 마루와 기둥장식 등 변형과 내부 개조	안채+사랑채	?	안채	×
박영효가	1895년 건립, 사랑채, 별채, 대문간채, 행랑채 소실, 이건하면서 사랑채 복원	안채, (사랑채)	90여간	안채	×
김진홍가옥	1865년 건립, 1998년 불교재단에 기증, 별채 및 별당채 부가	안채, 사랑채, 중행랑, (대문채)	60여간	안채 / 사랑채	×

살펴보면, 안채의 규모는 14~28간으로 평균 20여간 규모이다. 배치형태는 ㄱ자형 4동, ㄷ자형¹¹⁾이 2동으로 ㄱ자형이 더 많이 나타났고, 2~3칸의 대청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안방과 건너방이 배치되는데, 안방과 큰 부엌이 서로 접해 있다. 즉 ‘건너방-청-안방-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 청, 방 등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하였다. 특히 박영효가는 2칸의 대청과 별도로 3칸(퇴를 포함한 전체 9칸)의 큰 대청을 두어 제사 등, 문중의 모임이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 각 가옥별로 형태, 규모, 주칸과 기둥 길이 및

구조양식 등을 정리하면 [표 2]¹²⁾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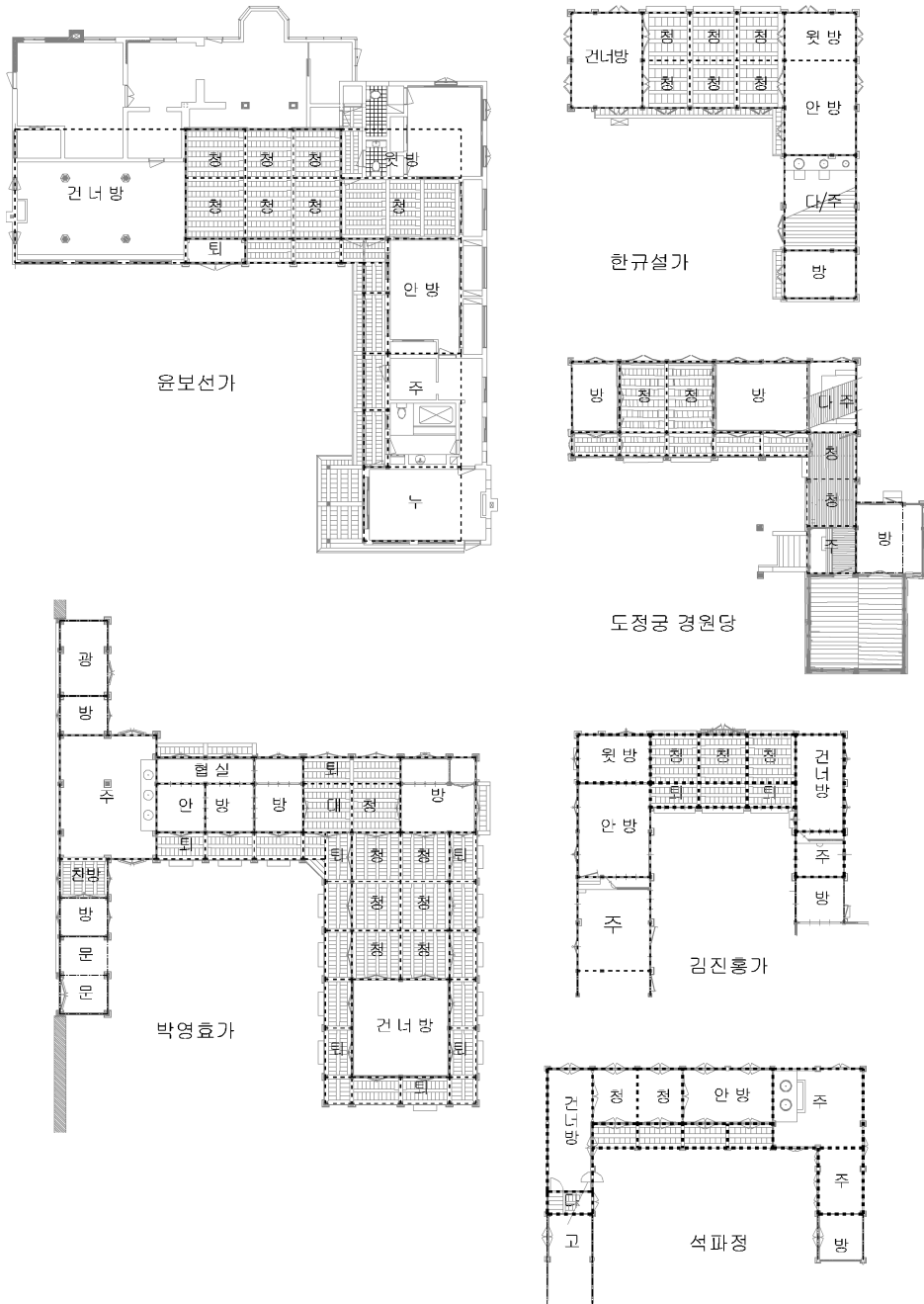
가옥 구조는 윤보선가만 물익공을 하였고, 나머지 가옥은 민도리집이다. 주칸은 평균 7.9尺(2,435mm)¹³⁾, 기단 및 초석은 전체가 다듬은 가공석이며, 고주고(高柱高)는 9.8尺 내외, 평주고(平柱高)는 8.25尺 내외로 나타났다. 가구는 1고주5량이 일반적으로 보이며, 윤보선가와 박영효가는 2고주 7량으로 규모가 크고 파련대공에 겹쳐마 양식으로 다른 건물에 비해 격식을 높였고, 막새는 윤보선가에서만 나타났다. 처마는 겹쳐마, 지붕은 팔작지붕을 기본 형태로 하고 있다.

청나라를 다녀온 이후 1850년을 전후하여 지은 것으로 벽돌의 사용이나, 중국식 정자 등 청의 건축 양식을 도입하였다. (종로구, 『石坡亭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0)

11) ㄷ자형으로 분석한 안채는 전체 ㄱ자형의 배치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안채의 실 구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행랑과 중문간을 제외한 순 안채만을 따로 떼어내어 분석하였다.

12) 종로구, 『石坡亭정밀실측조사보고서(2010)』, 서울특별시, 『남산골 한옥마을 해체 실측 및 이전 복원공사 보고서(1998)』, 서울시, 『제단대비 문화재도면(2009)』의 도면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주칸 등 치수는 mm 단위이며, 평균치로 하였고, 주칸의 길이와 같이 평균치로 할 경우 혼돈의 우려가 있는 것은 대표적인 치수를 임의 선정하였다.

13) 3-2장에서 밝힌 낙선재 용척(1尺≒307mm)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1> 한양의 상류주택 안채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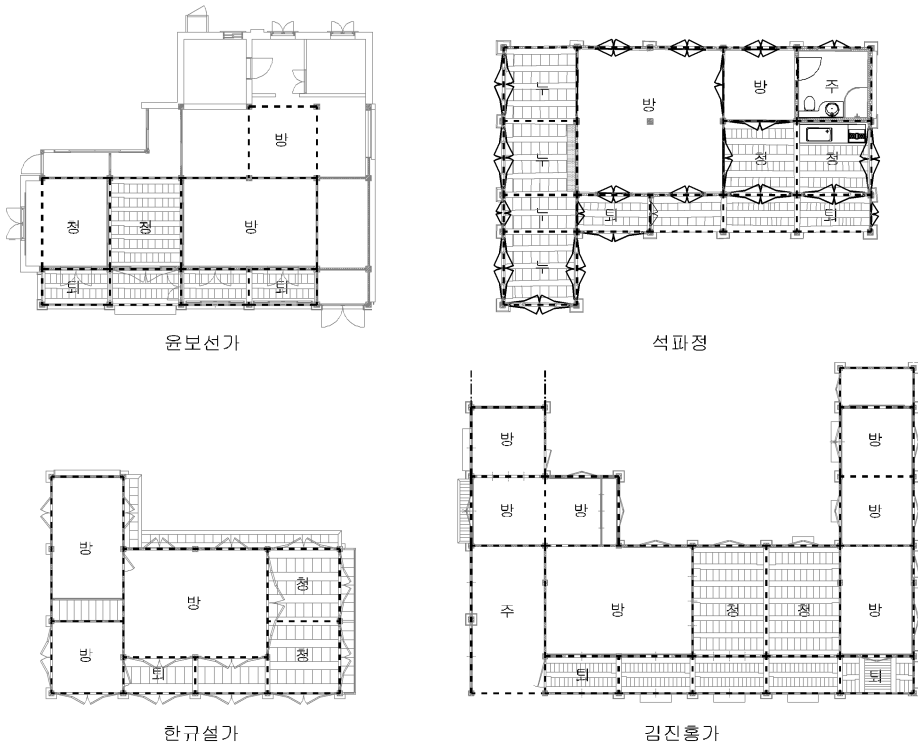
(자료 : '주석 12'의 보고서 내 수록 도면에 실 공간 구성을 간가도형식으로 중첩하여 작도하였으며, 변형부분은 원형을 추정하였다)

사랑채는 소실 및 변형된 가옥을 제외한 4 군 12간으로 20간인 안채보다 규모가 작다. 몸동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사랑채의 규모는 평체의 전면이나 후면에 '누(樓)'나 '방(房)'이 돌

조선후기 한양의 상류주택과 비교를 통한 낙선재의 건축특성 연구 11

[표 2] 한양지역 안채의 세부 구조양식 (단위 : mm)

구분	윤보선가	석파정	한규설가	박영효가	김진홍가	경원당	기준형식
형태	ㄱ자형	ㄷ자형	ㄱ자형	ㄱ자형	ㄷ자형	ㄱ자형	ㄱ자형
규모(간)	28	13.5	18	28	16	13.5	20여간
양식	물익공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집
주칸	2,460	2,310	2,430	2,500	2,480	2,433	2,435
기단/초석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기둥규격	210×210	174×174	200×200	210×210	180×180	205×210	185×185
고주교	3,275	2,690		2,915		3,345	3,056
평주교	2,835	2,280	2,500	2,600	2,130	2,865	2,534
가구	2고주7량	1고주5량	5량	2고주7량	5량	1고주5량	1고주5량
대공	파련대공	판대공	판대공	파련대공	판대공	판대공	판대공
처마	겹처마	홀처마	겹처마	겹처마	홀처마	겹처마	겹처마
막새	유	무	무	무	무	무	무
지붕	팔작	팔작+막배	팔작+막배	팔작+막배	팔작	팔작	팔작



<그림 2> 한양지역 상류주택 사랑채 평면

(자료 : '주석 12'의 보고서 내 수록 도면에 실 공간 구성을 간가도형식으로 중첩하여 작도하였으며, 변형부분은 원형을 추정하였다)

[표 3] 한양지역 사랑채의 세부 구조양식 (단위 : mm)

구 분	윤보선가	석과정	한규설가	김진흥가	기준형식
형태	ㄱ자형	ㄱ자형	ㄱ자형	ㄷ자형	ㄱ자형
규모	9	13.5	9	16.5	12칸
양식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집
주칸	2,480	2,470	2,430	2,480	2,465
기단/초석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기둥규격	215×215	200×200	180×180	180×180	185×185
고주교	2,950	2,716	3,100	2,750	2,879
평주교	2,460	2,522	2,600	2,600	2,546
가구	1고주5량	1고주5량	1고주5량	1고주5량	1고주5량
처마	겹처마	홀처마	겹처마	홀처마	겹/홀처마
막새	유	무	무	무	무
지붕	팔작	팔작	팔작+막배	팔작+막배	팔작

출된 ㄱ자형과 ㄷ자형 평면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청과 방이 사랑채를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이고, 방에 부엌이나 아궁이가 딸려 있다. 2~4칸의 주된 방 공간에 1~2칸 규모의 방이 연접하여 하나에서 세 개까지 더 배치된 경우도 있어 주된 방의 보조적 기능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청은 주로 2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석과정은 3.5칸의 긴 누마루가 몸체에 붙어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다.

세부 양식을 살펴보면 민도리집에 주칸은 8尺이고, 기단 및 초석은 다듬은 돌을 사용하였으며, 고주교는 9.4尺, 평주교 8.3尺이며, 가구는 전면에 퇴를 둔 1고주5량가에 판대공을 하였다. 겹처마와 홀처마가 반반씩 나타나며, 윤보선가 만 막새를 사용하고 있어, 다른 가옥과 차별화되어 있다. 지붕은 팔작형태가 주를 이룬다.

장식 및 의장성을 보면, 박영효가는 파련대공과 보아지의 조각이 격을 높여주고 있다. 석과정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물 곳곳에 장식을 하였는데, 고막이벽 및 합각의 장식, 별당의 좌우벽 전체를 벽돌로 쌓고 원형창을 둔 것,

궁궐양식의 협문 등은 일반 상류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예이다.

상류주택의 안채와 사랑채를 각각 분석하였으나, 안채와 사랑채를 제외한 주변의 많은 변화로 인해 배치와 공간구성 분석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양은 아니지만 인근 경기지역¹⁴⁾인 이천의 김좌근고택¹⁵⁾에서 배치 및 공간구성 등을 보조적인 자료로 분석하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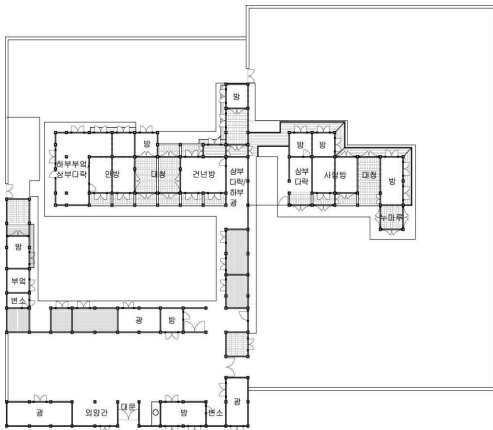
김좌근고택은 사랑채 둘레의 행랑과 부속건물이 소실된 것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가 90여

14) 경기지역은 지정된 전통가옥이 총 28동이며 상류주택 범주의 가옥이 12동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규모가 30~50칸으로 본 연구의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15) 김좌근(1797~1869)은 김조순(1765~1832)의 아들로 순조비 순원왕후는 그의 누이이며, 1838(헌종4년) 관관으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조판서, 한성부판윤 등 요직을 역임하고, 1853~1863년 영의정에 3번씩이나 보좌되어 안동김씨 세도정치 of 중심인물이다. 가옥명은 김좌근고택이나, 실제 김좌근이 살았던 곳은 아니다. 그의 입양 아들인 김병기가 부친의 묘 관리를 위한 묘막으로 건립한 건물로 공간 구성은 거주기능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 거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경기도지정문화재실측조사보고서 - 김좌근고택』, 2009,

16) 경기도, 『경기도지정문화재실측조사보고서 - 김좌근고택(2009)』에 실린 실측도면을 제작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간(안채 27.5간, 연결채 2간, 사랑채 13.5간, 중문 18간, 대문 14간, 기타 행랑 등 20여 간)에 이른다. 안채영역은 2중의 행랑으로 둘러싼 폐쇄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낙선재의 석복헌과 유사하다. 안채와 사랑채가 복도를 통하여 연결되었고, 안채와 사랑채의 연결은 연결복도와 복층 담장의 협문 출입구가 있는 등 안채와 사랑채의 좌우를 바꾸면 낙선재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평면 형태이다.



<그림 3> 김좌근고택 배치평면도
(자료 : 경기도지정문화재실측조사보고서 수록도면을 CAD로 제작도)

낙선재 건립 후 20여 년 뒤 김좌근고택이 세워진 것을 볼 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가문으로 궁궐에 있는 낙선재를 보고 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안채와 사랑채와의 관계를 보면, 영역을 행랑과 담장으로 분리하였고, 출입도 별도의 동선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채와 사랑채가 별동의 건물이지만 연결 복도를 두어 주인의 왕래 동선에 편의를 부여하였다.

2-2. 장서각 소장 가옥도형

장서각 소장 가옥도형(家屋圖形)¹⁷⁾은 현재

17) 정정남, 『인사동 194번지 都市的 變化와 18세기 漢

한국학중앙연구원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중 24개 자료가 가옥도형으로 상민에서 상류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가옥을 보여주고 있어, 조선후기 한양가옥의 대강이 짐작된다. 이 가옥도형의 작성 시기, 주제, 이유 등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부 가옥주의 실명이나 주변 상황의 명문이 있어 가옥의 성격과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각 도형별로 표현 기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온 칸과 반 칸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고, 집의 배치와 공간구성, 평면구조 및 실의 기능을 표기하는 등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간가도(間架圖)의 형식을 띠고 있다. 총 24개 가옥도형 중 집의 규모가 작아 상류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궁가(宮家)¹⁸⁾를 제외하면 13개 도형, 16개 가옥으로 압축된다. 16개동의 규모는 62~158간으로 대상 가옥의 평균 규모는 93간이다. 60간대 5동, 70간대 3동, 80간대 2동, 100간대 2동, 120, 130, 140, 150간대 각 1동씩으로 분포한다. 조선시대 가

城府 具允鉦家屋에 관한 연구』-장서각 소장 里門內 具允鉦家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7권 3호 통권58호, 2008년 6월, 홍승재, 『장서각 소장 가옥도면』, 건축역사연구 제18권2호 통권63호, 2009년 4월, 정정남은 그의 연구에서 家屋圖形의 명칭은 당시 ~圖形, ~家屋~ 등의 근대 이전의 사용 사례를 들어 家屋圖形이라 명칭을 부여하였다. 홍승재는 도면 명칭은 작성방법과 표현 형식에 따라 붙여지기 때문에 도면이 제작된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 사용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1800년 작성된 『健陵山陵都監儀軌』에 '間架圖' 용어가 처음 등장 이후 사용되어 왔던 용어로 간가도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가옥도형은 도형의 성격을 나타내고, 간가도는 도형의 표현형식, 제작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본 연구는 상류주택이 대상으로 가옥이라는 성격을 부여하고자 함에 따라 '가옥도형'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8) 정정남, 『조선후기 궁가의 공간구성 및 배치』,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1, '궁가는 왕실가족의 거주 외에도 왕실의 내탕(內帑)을 담당하고 왕실 일족의 재정 운영과 사후의 제사까지 담당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공간도 주생활/接客/사무·회계/저장·작업/궁가복무·노자 등의 6개 영역의 성격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궁가는 주거기능 등 성격이 유사하나, 배치, 공간구성 등에서 본 연구의 상류주택과 혼돈의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표 4] 장서각 소장 가옥도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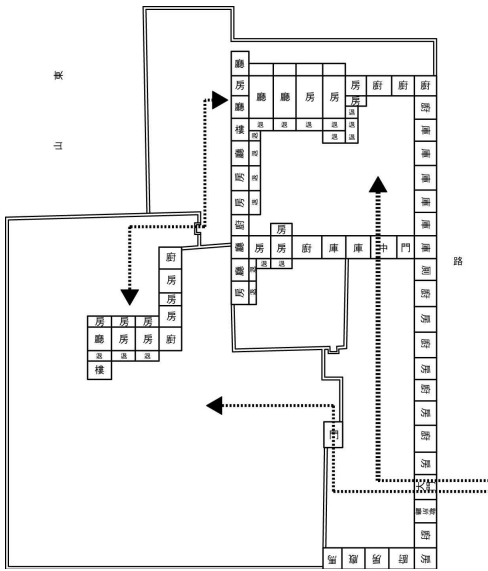
연번	사료명칭	분석대상	비고
1	笠帽峯圖形附邸宅圖 小公洞洪高陽家圖形	○ ×	궁가, 16세기말
2	金箕錫家等平面圖	金箕錫家	○
3		金在豊家	○
		金在豊弟家	×
	南藪洞李圭鳳家平面圖	×	부산 지역 가옥
	士大夫家配置圖形	×	궁가(홍고양가와 同)
4	士大夫家配置圖	○	
5	卞世義家, 韓宅祚家配置圖	卞世義家	○
6		韓宅祚家	○
7	士大夫家韓屋平面圖	○	
8	士大夫家構造配置圖形	○	
9	士大夫家韓屋構造圖	○	
	士庶人家圖形	×	중류가(43칸 이하)
10	上護軍尹滋承家, 進士尹相協家平面圖	尹滋承家	○
		尹相協家	×
	里門內具允鈺家圖形	×	궁가, 18세기
11	李參判起鎬家等配置圖	○	
	李參判範晋家等配置圖	×	사대부가한옥평면도와 同
12	李臨陂瓦家平面圖形	○	
	磚洞宅淸風舍廊	×	사랑채만 도시, 약식
	前禦將宅四棟平面圖	×	주변 배치 생략
13	鑄洞李惟命參判家配置圖	○	
	淸平尉宮平面圖	×	궁가
14	六十六間半韓屋圖	○	
	武藝廳配置圖	×	가옥도형이 아님
	郡小家連接圖形	×	중류, 서민, 상가
15	김안택 집平面圖	西가	○
16		東가	○

사제한인 대군 60칸, 2품 이상 40칸의 규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옥도형에 나타난 개별 가옥의 영역구성은 대문채와 중문채 사이의 바깥영역, 사랑채영역, 안채영역을 공히 갖추고 있고, 사당은 4개동을 제외하고는 사당영역을 갖추고 있다. 4동에서 사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16세기 이후 가례가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면서 사대부가라면 의당 사당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가대나 규모면에서 여유가 있는데도 사당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 이유는 사당이 있는데도 목적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제외하였거나, 씨족단위 집단으로 중택 등의 중심 가옥에 별도로 사당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역구성에서 산정 등의 후원영역을 둔 경우도 있어 공간배치는 진입부부터 바깥마당(대문과 중문사이의 공간)-사랑채-안채-사당에 후원 영역이 가미되어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사대부가구조배치도형(士大夫家構造配置圖形)」, 「사대부가배치도(士大夫家配置圖)」에서 공간구성과 안채와 사랑채의 배치, 출입동선과 주인의 사적동선 등이 잘 표현되어 있어 그 사례를 살펴보면, 「사대부가 구조배치도형(士大夫家構造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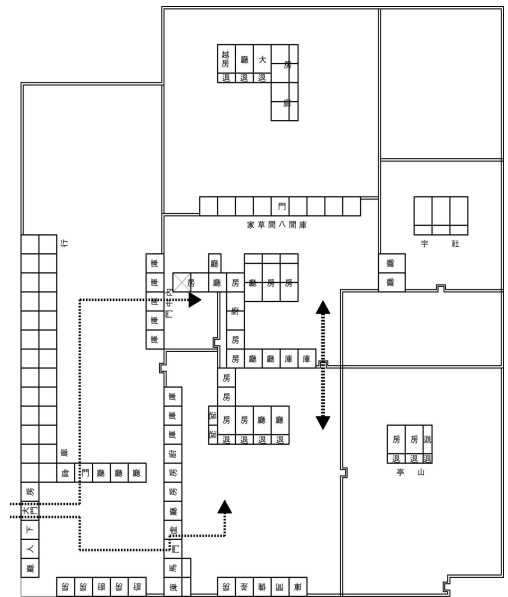
置圖形)」은 안채, 사랑채, 바깥마당, 후원의 4개영역으로 구획되었다. 안채는 각각 2칸인 대청과 안방을 중심으로 대청 좌측으로 청, 방, 누가 배치되고, 안방 동측으로 방과 주가 배치된다. 중심의 안방과 대청은 보방향이 2칸이고 남북으로 퇴를 둔 형태로 보 방향 길이가 3칸으로 고주를 사용한 건물로 규모가 큰 건물로 추정된다.



<그림 4> 士大夫家構造配置圖形
(자료 : 장서각 소장 가옥도형을 CAD로 재작도)

사랑채는 一자형 몸체에 전후로 방과 누를 연결한 ㄱ 형태이다. 청-방-주를 두고 남서측면에 전면으로 돌출한 누를 두고, 북동측으로는 방과 주를 두었다. 안채와 사랑채는 담장과 행랑으로 완전하게 구획하였고, 사랑채 영역을 구획한 동측 담장에 협문을 두어 출입하고, 안채는 행랑의 중문간으로 출입하는 분리된 동선이다. 안채와 사랑채는 독립된 건물이며, 연결복도는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사랑채 북측 담장에 협문을 내어 안채의 배면 마당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적인 별도의 동선을 마

련해 두었다. 「사대부가 배치도(士大夫家配置圖)」는 바깥마당-사랑채-안채-사당영역에서 산정이 있는 후원영역까지 5개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안채는 ㄱ자형으로 다른 가옥에 비해 규모도 작고 공간도 작다. 그러나 뒷마당의 넓은 공간에 초가의 고간과 별도의 안채공간을 두어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안채는 방 2칸, 청 1칸, 방과 주가 ㄱ자형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청과 방이 2칸, 북측의 퇴칸이 있어 보방향이 2.5칸이 된다.



<그림 5> 士大夫家配置圖
(자료 : 장서각 소장 가옥도형을 CAD로 재작도)

사랑채는 안채에서 연결된 행랑의 남측에 一자형으로 배치되는데, 2칸의 방과 2칸의 청이 중심공간을 이루고 방과 청의 둘레로 퇴가 감싸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은 담장과 행랑으로 완전히 구획¹⁹⁾되고 출입도 서로 다른 중문을 이용한다. 안채와 사랑채는 행랑으

19) 공간구획에서 '완전'의 의미는 담장과 행랑 등으로 영역을 구성한 것으로 다른 영역과 차단되고, 마당이 독립된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16 논문

[표 5] 장서각 소장 가옥도형의 공간구성 현황

가옥명	간수	바깥영역		사랑채영역		안채영역		사당/후원		평면형태	
		대문채	행랑	사랑채	중문채	안채	안행랑	사당	후원	사랑채	안채
笠帽峯圖形	62	대문채	8	사랑채	12.5	안채	14.5	산정	8	—	□
		고간	5	정자	1	안행랑	7	행랑	5		
金箕錫家	125	대문채	18.5	사랑채	10	내사	36	사당	4.5	┌	□
		고간	5	소사랑	8.5	안행랑	12				
金在豊家	72.5	대문채	11	사랑채	11	안채	18	사우	3	└	□
		행랑	6	행랑	4	안행랑	12	제기고	2		
士大夫家配置	133	대문채	5	사랑채	12	안채	14.5	사당	6	└	└
		행랑	26	연결채	6	내중문	5	제청	3		
		부속2	10	행랑/差備	19.5	별채/고간	21	/산정	5		
卞世義家	104.5	대문채	8	사랑채	17.5	안채	22.5	사당	4.5	—	ㅁ
		행랑	15	초헌간	3	안행랑	20	고간1	3		
				별채/마구	8			고간2	3		
韓宅祚家	69	대문채	9	사랑채	6	안채	26	사당	4.5	—	ㅁ
		마구	6			안행랑	12				
		별동	4								
韓屋平面	143.5	대문채	5	사랑채	15	안채	32	사당	5	└	ㅁ
		軺軒/廡	10	고간	7	익랑	3	/	/		
				서실	6	별당/행랑	9/28.5	동별택	23		
構造配置	77	대문채	17	사랑채	11.5	안채	35.5			┌	□
						중행랑	11				
韓屋構造	86.5	대문채	8	사랑채	10	안채1	31			—	ㅁ
		중문채	9	허간	4	안채2	15				
				별채	9.5						
尹滋承家	76.5	대문채	4	사랑채	9.5	안채	28	사당?	3	┌	□
		행랑	12	중문	11	안행랑	9				
李起鎬家	103	대문채	7.5	사랑채1	12.5	안채	21	사당	4.5	┌	□
		행랑	14	사랑채2	8	안행랑	7	고간	3		
		중문채	13.5	사랑채3	5			제청	3		
		고간	4								
李臨陂家	63.5	대문채	13	사랑채1	7	안채	15	사당	4.5	—	└
		중문채	4	사랑채2	4.5	안행랑	4.5				
						고/허간	11				
李惟命家	158.5	행랑	74	사랑채	11	안채1	30	사당	6	┌	└
		마구	5			안채2	16	제청	2		
		○○	4.5			허간/방	10				
六十六間半韓屋圖	66.5	대문채	12	사랑채	12.5	안채	15			└	□
		중문채	6	측2	1	안행랑	11				
				산정	2	고간	7				
김안타 西가	87	대문채	18	사랑채1	8.5	안채	14	사당	6	┌	□
		중문채	5.5	중문채	7	안행랑	13				
				사랑채2	10	○○	12				
				별당	3	측	1				
김안타 東가	62.5	대문채	13	사랑채	8	안채	19	사당	4.5	—	□
				허간	2	안행랑	6				
						고간/측	10				
기본구성 (평균규모)	60	대문채	13	사랑채	11	안채	23	사당	5	┌	□
						행랑	8				

로 연결되어 있다. 측면 담장에 협문을 내어 별도 동선도 마련하였다.

16개 동의 각각의 공간구성과 규모, 안채 및 사랑채의 형태 등을 [표-5]와 같이 정리하였다.

안채는 14~36칸으로 평균 23.5칸으로 4~6칸의 대청과 4칸의 안방이 중심을 이루고 건너방과 주, 청, 방이 연결되어 구성된다. 안채에는 행랑과 고, 허간 등 보조적 성격의 공간이 있고, 「鑄洞李惟命參判家配置圖」의 경우 장고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평면형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ㄱ자형의 폐쇄적인 구성이다. 16개 동 중 13개 가옥이 ㄱ자형이며, 3개동은 한쪽 면이 트인 구성이다.

ㄱ자형의 경우 안채의 주공간은 ㄱ자형과 ㄷ자형이 각각 7동과 3동이다. ㄱ자형과 ㄷ자형의 기본적인 형태에 전면과 후면으로 확장된

형식이다. 김기석가, 사대부가평면도, 이유명가는 보방향이 2칸이며, 사대부가구조배치도형은 2칸에 앞뒤 반 칸이 붙은 3칸 길이로 체의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기본적인 가구는 전면에 퇴를 둔 1고주 5랑가의 일반적인 규모로 추정된다.

사랑채의 규모는 6~17칸으로 평균 11칸이다. 평면 형태는 ㄱ자형이 7가옥, 一자형이 6가옥, 기타형이 3가옥으로 一자형 몸체에 누나방이 1칸 돌출되어 ㄱ자형을 한 경우가 기본 형태로 보인다. 실 구성은 대청-방-누의 형식으로 방이 중심이고 한쪽에 대청을 한쪽에 누를 두는데 누는 하부 아궁이를 두는 누다락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전면 돌출형 누(樓)는 「사대부가구조배치도」 가옥에서 나타난다.

[표 6] 가옥도형의 안채와 사랑채 관계

* 이기호 및 김안태가(西)는 주인 공간으로 추정되는 사랑채만을 대상

가옥명	안채와 사랑채 관계				
	영역 구획	구획 방법	출입 동선	건물 형태	사적 동선
笠帽峯圖形	완전	담장	분리	연결형	연결채, 배면 담장의 협문
金箕錫家	완전	행랑	사랑마당 공유	독립형	
金在豊家	완전	담장	분리	독립형	내부 담장의 협문
士大夫家配置	완전	행랑과 담장	분리	연결형	배면 담장의 협문
卞世義家	완전	행랑과 담장	분리	연결형	
韓宅祚家	불완전		사랑마당 공유	일체형	
韓屋平面	불완전		사랑마당 공유	일체형	
構造配置	완전	행랑과 담장	분리	독립형	배면 담장의 협문
韓屋構造	불완전		분리	일체형	
尹滋承家	완전	행랑과 담장	분리	연결형	배면 담장의 협문
李起鎬家	완전	행랑과 담장	분리	독립형	배면 담장의 협문
李臨陂家	불완전		사랑마당 공유	독립형	
李惟命家	완전	담장	분리	독립형	
六十六間半	불완전		사랑마당 공유	독립형	배면 담장의 협문
김안태 西가	완전	담장	분리	독립형	
김안태 東가	완전	행랑과 담장	분리	독립형	배면 담장의 협문

18 논문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성 및 배치방식을 살펴보면, 중심영역인 안채와 사랑채 영역을 행랑이나 담장으로 완전히 구획한 가옥이 11 가옥이다. 공간 구획 방법은 담장과 행랑으로 구획된 것이 6동, 담장만으로 구획된 것이 4동, 행랑만으로 구획된 것이 1동으로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을 담장 및 행랑으로 구획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출입 동선은 사랑마당을 공유하여 안채로 들어가도록 배치된 가옥은 5동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안채와 사랑채, 각각 별도의 문으로 출입하도록 분리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의 건물형식은 한 몸으로 된 것을 일체형으로 보았고, 연결복도나 행랑으로 연결된 것을 연결형, 완전히 분리된 것을 독립형으로 나누어 3가지 타입²⁰⁾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형이 9동, 연결형이 4동, 일체형이 3동으로 독립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랑채와 안채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출입동선 이외에 살짝 감추어둔 사적동선을 살펴보면 절반인 8동에서 안채와 사랑채의 최단 동선이 되는 위치에 담장 협문이 위치하여 주인인 왕래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3. 창덕궁 내 낙선재의 건축 특성

3-1. 낙선재의 공간구성과 구조양식²¹⁾

낙선재의 가장 오랜 모습을 알 수 있는 자

20) 윤일이, 조성기,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채영역의 지역별 동질성과 차별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권12호(통권122호), 1998.12)에서는 사랑채 유형을 일체형, 연결형, 분리형, 별도형으로 나누었다. 일체형은 □자형 건물에 사랑채가 있는 경우이고, 연결형은 □자형에 연결되어 사랑채가 있는 경우, 분리형은 마당을 공유하면서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된 경우, 분리형은 □자형 안채에서 떨어져 사랑채가 있는 경우로 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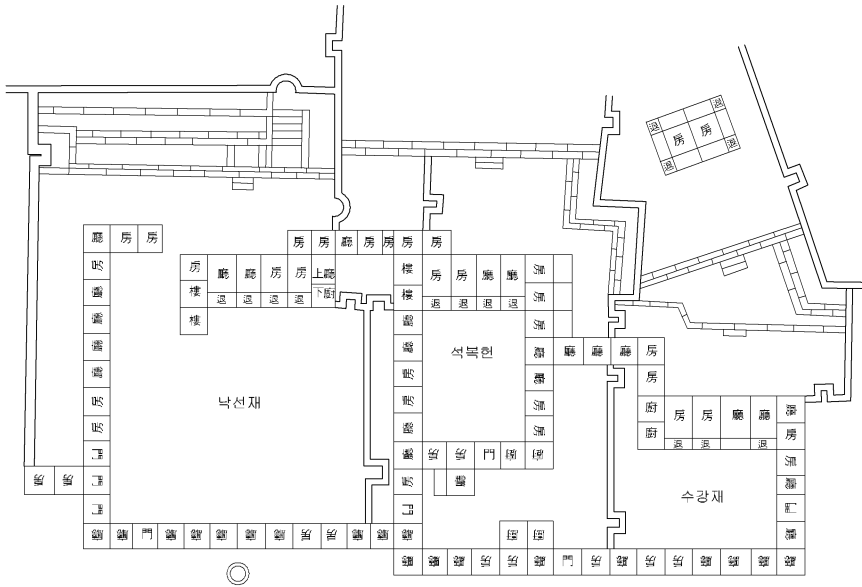
21) 수강재는 대왕대비의 거처로 낙선재 및 석복헌과의 출입 동선이 다르며, 본 연구의 사대부풍 상류주택 연구의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분석 차원에서 직접 관계가 없어 제외하였다.

료로는 『동궐도형(東闕圖形)』과 『궁궐지 (宮闕誌)』가 있어 낙선재 일곽에 대한 평면의 실 구성, 배치 및 공간구조를 알 수 있다.²²⁾

사랑채격인 낙선재는 정면 6칸, 측면 2칸에 남서측과 북동측에 각 1칸이 돌출된 ㄱ 형태의 평면으로 17.5칸이다. 낙선재 영역은 낙선재를 감싸고 있는 서행각 15칸, 남행각 12칸, 외행각이 15칸으로 총 59.5칸이다. 안채격인 석복헌은 낙선재와 대칭인 ㄴ 형태로 16.5칸이며, 동행각이 7칸, 서행각이 5칸, 남행각이 7.5칸, 중행각이 13칸으로 2중의 행각이 둘러워져 있고, 외행각이 11칸으로 총 60칸이다. 따라서 낙선재 일곽은 119.5칸이 된다. 외행각을 제외할 경우 낙선재 일곽은 93.5칸이 된다. 대문과 중문간의 역할인 외행각과 남행각 사이의 바깥마당 영역, 낙선재가 있는 사랑채영역, 석복헌이 있는 안채영역, 낙선재 배면의 화계와 평원루가 있는 후원영역으로 크게 4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

낙선재는 남향한 주건물 전면에 넓은 마당이 있고, 남측과 서측에 행랑이 있고, 동측은 안채와의 경계를 나타내는 담장으로 구획하였다. 좌측에 누가 있고 차례대로 청-청-방-방-주로 일반적인 사대부가의 청-방-주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 안채과의 연결부에 방 2칸이 있다. 서측 누는 북측의 방에서 한 단높게 누가 2칸이 있으며, 1칸은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손님의 접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랑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석복헌은 □자형으로 공간을 폐쇄적으로 구성하였고, 외부에서의 진입이 행랑의 문을 여러 번 거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좌측부터 누-방-방-청-청이 남향하여 배치되어 사랑채와 대치

22) 노진하, 『낙선재 일곽의 조영배경과 건축특성』 47쪽, 『동궐도형』과 『궁궐지』는 일부 간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석복헌 도리칸(동궐도형 6칸반, 궁궐지 6칸, 헌 6칸반) 석복헌 동행랑 간수(동궐도형 6칸, 궁궐지 7칸, 헌 6칸)”



<그림 6> 낙선재일곽 배치도 (자료 : 동궐도형의 낙선재 부분을 CAD로 제작도)

되는 형식으로, 동측 1간은 방이 연결되어 있다. 북측으로 역시 사랑채와 연결부에 방 2간이 있다. 안채는 일반 상류주택과 달리 주(廚)공간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누 하부 난방을 위한 공간이 있고, 부엌 용도의 실은 별도의 부속 공간에서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낙선재의 구조양식

복원 시 현황 실측 결과 주칸은 2,450~2,555mm로 나타났는데, 주칸 8척(尺)을 기준으로 2,450mm 일 경우 306.25mm, 2,455mm 일 경우 306.875mm로 1尺이 약 307mm의 용척으로 보인다.

사랑채의 기단 및 초석은 잘다듬은 가공석이며, 기둥은 8寸의 각주이며, 고주고는 10.9尺, 평주고는 8.3尺이다. 익공집이며, 가구는 1고주5량가, 대공은 파련대공이다. 겹처마에 막새를 두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안채 역시 기단과 초석은 잘 다듬은 가공석이고, 기둥규격은 사랑채보다 작은 7寸의 각주를 사용하였

으며, 고주고는 9.25尺, 평주고는 8.1尺이다. 민도리집 양식에 가구는 1고주5량가이며, 판대공을 두었다. 홀처마에 막새를 두었으며, 팔작지붕에 익량부는 맞배지붕이다. 사랑채의 부채규격과 높이가 높고, 익공의 형식으로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에 더 격식을 높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왕의 거처공간으로서 중심 몸체의 지붕에는 용두를 올려놓은 것과 상류주택에 쓰기 어려운 익공양식을 가미한 것에서 차별을 두었다.

3-3. 사랑채와 안채와의 관계

낙선재와 석복헌 즉 사랑채와 안채 두 공간의 영역구획은 행랑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낙선재와 석복헌 사이 행랑의 사랑채 마당 쪽에는 담장을 설치하여 공간적으로 완벽한 구획과 함께 안채 서행랑 배면의 모습을 차단하였다. 안채와 사랑채의 출입은 분리되어 있다. 낙선재는 솟을대문인 장락문으로 석복헌은 남행각의 중문으로 출입하는 구조이다. 낙선재와 석복헌의 상호간의 출입은 낙선재와 석복헌 사이

20 논문

에 있는 담장의 문과 낙선재 중행각의 문을 통하여 석복헌 바깥마당으로 가고 다시 북측의 남행각 중문을 통하여 출입한다. 이는 왕실의 시중을 드는 궁녀들의 일상적인 출입문으로 보인다. 건물형태는 낙선재와 석복헌이 별동의 건물이나 가운데 연결복도를 둔 연결형²³⁾이며, 현종의 사적동선은 이 연결채를 통한 출입이 일반적으로 보이나, 사랑채의 후원으로 나가 낙선재 동측 끝에 연결된 담장의 협문을 지나 석복헌에 갈 수 있는 또 다른 동선이 있다.

3-4. 낙선재의 의장적 특징

낙선재는 전면에 돌출된 누마루를 두었는데 전면의 뒷마루보다 한 단 높고, 누마루 안쪽의 방보다도 한 단 높게 조성었다. 누마루는 하부의 장초석과 짧은 각주 위에 마루를 올렸는데, 하부에 머름을 둔 들어열개 문을 3면에 설치해 두어, 여름에는 삼면이 완전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귀틀 하부에는 구름문양의 초각 장식을 한 낙양을 두었고, 창호는 완(卍)자와 아(亞)자를 복합한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누마루는 의례나 일상적인 공간인 대청마루보다 높은 위치로 시야가 트이고, 더 개방적이며, 휴식과 접객 등에서 활용되는 공간이라 볼 수 있는데, 낙선재의 누마루가 그 형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

낙선재 본채 누마루 밑의 아궁이 벽면에는 추상적인 문양의 장식이 보이는데, 자기(磁器)

23) 1992부터 낙선재 일곽의 변형부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추진하면서, 낙선재와 석복헌의 연결채 2.5간은 덧달아낸 것으로 판단되어 제거하였는데 연결채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부가물 형태로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종이 거처한 낙선재와 경빈 김씨가 거처한 석복헌은 서로 유기적 연결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석복헌 건립 시 연결채를 지은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낙선재와 석복헌의 공간구성으로 볼 때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덕궁 낙선재 자문회의 자료(당시 감독관이었던 이만희 사무관 제공), '92.11.18, 낙선재와 석복헌은 동궐도형에 연결되었으나, 독립된 건물로 판단되어 절거)>

등의 표면 생기는 잔금인 빙렬(氷裂)²⁴⁾형태로 제작되었다. 이 문양은 얼음이 갈라진 것과도 유사하여 장식요소로 사용되었다.



<그림 7> 낙선재 누마루 하부

낙선재와 석복헌 사이를 구획하는 담장의 낙선재 쪽 벽면은 귀갑문양의 꽃담을 하고, 석복헌 배면의 협문 미장벽에는 포도를 후원 담장 벽에는 박쥐문 등을 장식하였다. 귀갑문은 장수를, 포도는 다산을 상징하는데 건물의 주인에게 각각의 의미로 헌정한 것이다. 또한, 낙선재의 후원은 경복궁의 아미산을 연상하듯 자연적인 경사지에 화계를 두어 꽃을 심었고, 연가를 둔 굴뚝과 석함 및 석련을 둔 이상향의 작은 동산을 마련하였다.



<그림 8> 낙선재 동측 담장

24) 노진하, 『樂善齋 一廊의 造營背景과 建築特性』,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4, 109쪽, 재인용, '명나라 말엽의 조원가인 계성(計成)이 저술한 『園治』에 빙렬문이 소개되었다.(계성, 『園治』, 역자 : 김성우, 안대회, 도서출판 예경, 1993)'



<그림 9> 협문 미장벽의 포도넝쿨

현종은 시·서 등의 문예 취미에 열정적인 활동을 보였는데 낙선재의 현판 및 주련들은 청나라 서예가의 작품으로 청에 대한 문화적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²⁵⁾, 건축물에도 청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이는데, 낙선재 사랑채의 대청을 출입하는 원형문과 후원의 만월문(滿月門)이 그 것이다.²⁶⁾ 원창(圓窓)은 청의 원림에 원형의 문동(門洞, 月亮門) 양식이 많이 나타나는데,²⁷⁾ 우리나라에 나타난 사례는 동궐도의 수방재(漱芳齋), 1847년에 건립된 낙선재, 1850년대 전후에 건립된 석과정과 집옥재²⁸⁾로, 이는 18~19세기에 나타난 대청(對淸) 인식의 변화와 청을 다녀온 실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고²⁹⁾, 건축에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낙선재 서측의 방에서 전면의 누마루에 오르는 위치에 원형문을 설치하였는데, 안쪽부터

차례로 2짝의 접이문, 미서기문, 고정창인 원형창 등 삼중창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후원에서 중회당 영역으로 나가는 만월문(滿月門) 역시 원형문으로 가운데 미서기문을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독특한 양식을 낙선재에 구현하였다.



<그림 10> 누마루와 방 사이의 원형창



<그림 11> 후원의 만월문

25) 유흥준, 『조선왕실의 인장, 현종의 문예 취미와 서화 컬렉션』, 국립고궁박물관, 2006

26) 서명수, 진봉희, 『조선후기 對淸認識의 변화와 中國風 건축요소의 유행』,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6권 제1호(통권 제50집), 2006.10.26~27

27) 李允錫 지음, 이상해, 한동수, 이주행, 조인숙 옮김, 『중국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2000, 370쪽

28) 집옥재는 창덕궁의 함녕전에 있던 부속건물로 고종 28년(1891)에 경복궁으로 옮긴 건물로 19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29)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섬용지(贍用志)에 원창(圓窓)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유구 지음, 안대회 옮김,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236쪽

4. 조선후기 한양의 상류주택과 낙선재 건축 비교

4-1. 배치 및 공간구성

한양지역 사례의 전체적인 규모와 공간구성을 보면 건물규모는 평균 79칸, 가옥도형에서 보인 가옥 규모는 평균 93칸으로 나타났다. 조선후기 한양의 상류주택들의 규모가 80~90간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가사제한인 대군 60칸, 2품 이상 40칸이라는

규정보다 훨씬 크게 지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 권력의 중심인물이거나, 가사제한의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간구성은 현재 남아 있는 한양의 상류주택은 전체적인 배치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옥도형에서 공간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공간구성은 대문과 중문의 바깥영역, 사랑채영역, 안채영역, 사당영역의 4개영역에 후원영역이 가미된 경우도 나타난다. 규모에 따라 줄행랑이나 부속 공간이 있고, 가족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기호가와 김안태가에서 처럼 본 사랑채 외에 별도로 소사랑채를 두기도 하였다. 휴식과 접객 등 후원과 정자의 공간이 반영된 경우도 있다. 실 구성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상류주택과 마찬가지로 사랑채가 “청-방”으로, 안채가 “주-안방-청-건너방”의 주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낙선재는 외행각 부분을 제외하면 93.5칸으로 규모면에서는 거의 유사하고, 사랑채의 공간 구성도 유사하다. 그러나 공간구성 상의 사당영역이 없는 것과, 안채에 주방이 구성되지 않는 것은 상류주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간구성상 낙선재는 궁궐 내의 건축이기 때문에 종묘나 선원전 등 선왕의 위패나, 어진을 모시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사당영역이 없고, 음식조리를 위한 부엌과 부대시설, 창고나 구간 등이 없는 대신에 왕실의 보좌를 위한 공간인 방과 청을 들인 행각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2. 구조양식

평면 형식과 구조양식을 살펴보면 한성지역의 안채 평면은 □자형이고 주공간은 ㄱ자형의 배치가 주류를 이루며, 사랑채는 ㄱ자형이 일반적이고, 一자형에 전후면으로 덧달린 방과 누(樓)가 배치되면서 ㄱ자형이 되는 경우도 많

이 나타난다. 안채가 사랑채보다 규모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가례(家禮) 등 집안의 행사가 주로 안채의 대청에서 이루어지고, 보조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에는 누마루가 대체적으로 적용되었는데, 한양지역의 석과정, 경기지역의 김좌근고택, 가옥도형에서는 「사대부가배치도」에서 돌출된 누마루가 확인되었다. 양식은 윤보선가의 안채가 물익공, 김좌근고택이 소로수장집이며 나머지는 민도리집 형식이다. 주칸은 8尺내외고, 기둥은 6~7寸의 각주이고, 고주고는 8.5~9.8尺, 평주고는 8尺내외다. 기단 및 초석은 일부 자연석도 있으나 대부분 다듬은 돌을 사용하였고, 가구는 1고주 5량이 기본 구조를 보이고, 윤보선가와 박영효가, 가옥도형 일부에 2고주 7량의 규모가 큰 건물도 나타난다. 일부 겹처마도 있으나 대부분 홑처마이며, 막새가 없는 팔작지붕 형식이 주로 나타났다. 현존 가옥에서는 단청은 확인되지 않았다. 안채와 사랑채의 구조양식은 낙선재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낙선재의 기둥 규격은 7~8寸으로 1寸정도 크고, 고주고가 11尺으로 1~2尺 정도 더 높고, 익공형식에 겹처마와 막새를 사용한 점에서는 낙선재가 보다 높은 격식을 보이고 있다.

4-3. 안채와 사랑채와의 관계

안채와 사랑채와의 관계는 가옥도형의 사례로 낙선재와 비교하였다. 가옥도형의 안채와 사랑채의 영역구획은 행랑과 담장으로 구획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출입은 일부 사랑마당을 공유한 것도 있지만 출입 동선의 분리가 기본적인 형식으로 보인다. 건물형태는 안채와 사랑채가 개개 건물로 건립된 독립형이며, 배면 담장에 협문을 두어 사적 동선도 배려하였다. 낙선재는 가옥도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안

채와 사랑채가 연결채로 연결된 형식이다. 낙선재 이후 궁궐 내에 건립된 연경당³⁰과 건청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연경당은 일체형 건물로, 건청궁은 방과 청을 통해 연결된 연결형으로 나타나는데, 안채와 사랑채간의 유기적 연결과 편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상류주택에서는 김좌근고택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고, 가옥도형 중에서는 「입모봉도형」, 「사대부가배치도형」, 「변세의가배치도」에서 안채와 사랑채 구획이 연결형 형식을 보이고 있다.

[표 7] 안채와 사랑채간 공간구성 비교

구 분	안채와 사랑채 관계				
	영역 구획	구획 방법	출입	건물 형태	사적동선
가옥도형	완전	행랑과 담장	분리	독립형	배면 담장의 협문
낙선재	완전	행랑과 담장	분리	연결형	연결채

상류주택과 낙선재의 가장 큰 차이라면 사용자의 신분에 있을 것이다. 건축의 구조양식과 공간구성이 유사하다고 하지만, 왕이 사용하는 건축공간으로서의 격식은 요소요소에 반영하였다. 왕을 상징하는 용두의 설치, 용·봉문양의 막새, 기둥규격은 1寸, 높이는 1~2尺 정도 크게 적용하였다. 또한, 상류주택에서도 일부 장식이 보이기는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반면, 낙선재에서는 미장벽, 담장 등에 상징적인 문양의 장식이 있으며, 특히 당시 청나라의 앞선 문물에 대한 유행을 반영하듯 현판·주련을 청나라 서예가의 작품을 사용하였고, 원형창이나 만월문 등 청의 영향을 받은 형식이 나타났다.

30) 김동욱, 『고종 2년의 연경당 수리에 대해서』, 건축사연구, 2004. 3, 연경당은 고종 2년(1865) 대대적인 수리시 현재의 모습으로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4-4. 소결

이상과 같이 규모, 공간구성 및 배치, 안채 및 사랑채의 평면형식 및 실 구성, 구조양식, 안채와 사채와의 관계 등에서 조선후기 한양의 상류주택과 상당부분 유사점을 보이고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는 낙선재가 19세기 중반 상류주택 형식으로 궁궐 내에 도입된 사례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당시의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의 권위적이고 형식을 중요시하던 궁궐 건물의 다소 불편한 배치형식과 공간구성에서 탈피하여 생활의 편리와 안락함을 반영하기 위해 상류주택 형식을 접목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반대로 궁궐에 출입이 잦은 대신들이 궁궐 내, 낙선재 건축의 아름다움을 참고하여 자신의 주택에 반영할 수 있었던 개연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19세기 당시에 노임정착과 함께 건축공장의 도시집중이 보편화되고³¹, 관장(官匠)에서 사장(私)으로 활성화되면서 궁궐 등 고급건축에 참여한 기술자가 일반 주택의 조영에도 참여함으로써 건축 상호간에 많은 유사점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경기지역의 민간 목수 활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민가 건물은 경복궁 등 궁궐공사에 참여한 목수가 지었던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³² 이러한 사례는 궁궐 건축이 상류주택에 영향을 주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5. 결 론

현존하는 한양의 상류주택 사례가 대표성을 떨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시 상류주택의 한

31) 김동욱, 『韓國建築工匠史研究』, 기문당, 1993

32) 이정미, 『20세기 전반기 경기도 민가의 구조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회 강연집, 2003.11, 경복궁 공사에 참여한 방동환이란 목수가 1907년에 민간건축에 참여한 것을 설문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24 논문

단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장서각 소장 가옥도형에서 배치 및 공간구성을 보완함으로써 19세기 한양 상류주택의 특징을 도출, 낙선재 건축과 비교되는 유사점과 차이점, 즉 낙선재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유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규모, 공간구성, 평면형식 등에서 유사점을 확인하였다. 90칸 내외의 규모나, 사당을 제외한 영역구성, 사랑채의 청-방-누/주의 평면형식에서 그렇다. 둘째, 구조양식면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주칸의 크기, 1고주5량가의 가구 형식, 가공초석과, 단청을 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건축형식이 상류주택에서 나타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셋째, 배치 및 공간구성에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획과 출입, 사적인 동선에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의 영역이 완전히 구획되어 있으며, 구획방식은 행랑과 담장으로 구획하였으며, 출입역시 안채와 사랑채의 동선을 달리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간 출입은 배면 담장의 협문을 두어 별도의 동선을 갖추었다.

차이점을 들면 첫째, 행랑 등 보조적 공간들의 용도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낙선재가 왕 거처공간이며, 궁궐 내의 건물로서 음식 조리, 마구, 창고 등 주거의 부대기능 공간과 사당 등의 공간이 불필요하고, 대신에 왕실의 보좌를 위한 공간인 청, 방의 행랑으로 대체되어 있다.

둘째, 구조양식은 대체로 유사하나, 기둥 규격, 고주고, 장식기와 등에서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기둥 규격은 상류주택보다 낙선재가 1寸 정도 크고, 고주고는 1~2尺 더 높다. 또한, 익공형식에 겹처마와 막새를 사용한 집에서는 낙선재가 보다 높은 격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왕을 상징하는 용두의 설치, 용·봉문양의 막새 등 세부적인 부분에 왕의 거처공간으로서의

격식을 한층 높였다.

셋째, 낙선재에는 상징적인 문양과 장식을 곳곳에 적용하여 심미적인 부분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상류주택에서도 일부의 장식이 있으나, 극히 제한적인 반면, 낙선재에서는 세련된 장식미를 갖추었다. 누마루 하부의 빙렬문, 누마루 귀틀의 구름문양 초각, 담장의 귀갑문, 포도넝쿨 등의 상징적인 장식을 두었으며, 원형창이나 만월문 등 청의 양식을 도입하여 건축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상 차이점의 원인은 낙선재가 왕의 거처 공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위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상류주택의 모습을 보이면서 차이점을 갖는 것은 궁궐 내에 건축된 낙선재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궁궐 내 상류주택 형식의 건축이 도입된 것은 궁궐건축이 그동안의 권위적이고 형식위주의 건축물을 경영했던 것에서 탈피해 편리와 안락함을 반영한 결과이며, 반대로 한양의 상류주택인 박영효가의 파련대공과 보아지의 초각, 석파정의 벽돌장식과 벽면의 원형창 등 화려함과 장식, 김좌근가의 공간구성 등을 보았을 때, 건축공장의 도시집중과 관장에서 사장으로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인 요인으로 19세기 한양의 상류주택과 동 시기 궁궐 내에 지어진 낙선재, 연경당, 건청궁 등의 건축이 일정 부분 상호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고유섭, 『한국건축미술사초고』, 1999
2. 장경호, 『韓國의 傳統建築』, 1992
3. 서울특별시, 『남산골 한옥마을 해체 실측 및 이전 복원공사 보고서』, 1998
4. 종로구, 『石坡亭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0
5. 서울시, 『재난대비 문화재도면』, 2009

6. 경기도, 『경기도지정문화재실측조사보고서 - 김좌근고택』, 2009 제50집), 2006.10.26~27
7. 김동욱, 『고종 2년의 演慶堂 修理에 대해서』, 건축역사연구 제13권 1호 통권37호, 2004년 3월 접수(2011. 4. 15)
수정(1차: 2011. 11. 14, 2차: 2012. 2. 13, 3차: 2012. 2. 14)
8. 정정남, 『家屋圖形을 통해본 18세기 漢城府에 위치한 사대부의 家垔와 주택』,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5.11 게재확정(2012. 2. 24)
9. 정정남, 『인사동 194번지 都市的 變化와 18세기 漢城府 具允鉉家屋에 관한 연구』-장서각 소장 里門內 具允鉉家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7권 3호 통권 58호, 2008년 6월
10. 정정남, 『壬辰倭亂 이후 南別宮의 公廨의 역할과 그 공간 활용』-장서각 소장 「소공동홍고양가도형」, 「사대부가배치도형」의 분석을 통하여-, 건축역사연구 제18권 4호 통권 65호, 2009년 8월
11. 홍승재, 『장서각 소장 가옥 도면』, 건축역사연구 제18권2호 통권63호, 2009년 4월
12. 홍승재·강인선, 『조선후기 한성부 상류주택의 규모와 영역별 실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권, 2011
13. 윤일이·조성기,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채영역의 지역별 동질성과 차별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권12호(통권 122호), 1998.12
14. 김동욱, 『韓國建築工匠史研究』, 기문당, 1993
15. 이경미, 『20세기 전반기 경기도 민가의 구조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회 강연집, 2003.11
16. 노진하, 『樂善齋 一廓의 造營背景과 建築特性』,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4
17.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인장, 헌종의 문예 취미와 서화 컬렉션(유홍준)』, 2006
18. 서명수·전봉희, 『조선후기 對淸認識의 변화와 中國風 건축요소의 유행』,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6권 제1호(통권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Nakseonjae through Comparisons with Hanyang's Upper-Class Houses in Late Joseon Dynasty

Cho, Kyu-Hyung

(Preservation Technology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bstract

Nakseonjae in Changdeokgung Palace was established at The King Hunjong's 13rd year (1847), the mid-19th century. It was constructed for own rests of King Hunjong and the residence of Kyungbin (king's concubines), and is showing features of upper-class houses from several points such as rustic architectural types by getting out of authoritative aspects as king's shelter space within the palace, block and floor distribution that separated spaces for men and women, simplicity in structures and styles, and non-colorful painting etc. This study aims at tracing on which architectural types did the upper-class houses within Hanyang (modern Seoul) at late Joseon Dynasty have and what was characteristics of Nakseonjae.

The resemblance between Nakseonjae and the upper-class houses was very little differences from scale aspects, and floor plan shapes of Anchaе (women's quarters) and Sarangchae (men's quarters) were followed basic common styles. Also, resemblance could be confirmed in the structural styles too.

Characteristics of Nakseonjae are showing apparent differences from clearance compositions such as hall configuration etc. Nakseonjae was king's dwelling place, and spaces for house's collateral functions such as kitchen, stable, and warehouse etc together with shrine were unnecessary, and such places were substituted into servants' quarters for assisting the Royal family. In detailed structural styles, column's size was larger 3cm or more than the upper-class houses, and its height was higher to the degree of 30~60cm. Besides, formality as king's shelter space was raised more in decorating aspects, and Nakseonjae was implemented by getting architectural influences from Qing Dynasty of China.

This study induced features of Hanyang's upper-class houses at the 19th century by supplementing distribution and space configurations at existing cases of Seoul and Gyeonggi area together with house diagrams having been collected by Gaokdohyung (site and floor plan) of Jangseogak Library, and confirmed resemblances and differences with Nakseonjae, that is, features of Nakseonjae. Through the result, this study judges a fact that architecture of Nakseonjae seemed to be affected from conveniences of upper-class houses within Hanseong, and also architectural styles and distribution types of Nakseonje would give influences to the upper-class houses.

Keywords : Upper-class house, Nakseonjae, Anchaе(women's quarters),

Sarangchae(men's quarters), Gaokdohyung(site and floor plan)
